

“대학교수들이 오고 싶어하는 연구 메카 만들 것”

금동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임원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제20대 신임원장에 금동화 박사가 선임됐다. 금동화 신임 원장은 전문성과 지도력, 개혁성, 국제적 감각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금동화 신임 원장은 대전고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 스탠퍼드대에서 재료과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5년 KIST에 들어와 지난 2002년 부원장을 지낸 바 있다. 다음은 금 신임원장과의 대담내용이다. <편집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금년으로 설립된 지 40년이 됩니다. 그간 KIST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성원과 성장해 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KIST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며 커다란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배들이 이루어 놓으신 업적과 앞으로 헤쳐 나갈 일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KIST라는 좋은 환경에서 재료분야의 흥미로운 연구와 학술 및 자문활동 등 여러 가지 경험과 경력을 쌓는 혜택

을 많이 받았습니다. KIST 원장으로 취임하여 제가 지금까지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받았던 혜택을 일부라도 갚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탐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선진국의 연구소 경영 방식을 학습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기관이었던 KIST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KIST의 정관에 나타난 설립 목적을 보면, 국가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KIST는 정부 연구소로서 시대 변화에 따라 국가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우리 과학과 기술의 수준을 현재 레벨로 끌어 올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KIST는 설립 초기부터 1970년대까지는 외국 기술의 도입과정에서 과학기술적 기틀을 제공함으로써 당시 국가적 명제였던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 일에 기여했습니다. 이 때 KIST가 개발에 참여했던 철강, 자동차, 선박, 통신 등은 오늘날 선진국과 나란히 경쟁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선진기술을 도입, 모방, 개량을 통하여 중화학 공업 및 기간산업의 발전을 선도했고, 1990년대에는 원천기술 개발에 도전하여 국내의 기술변화를 선도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확대되고 선진기술의 모방·개량만으로는 지식기반 경제 사회로 이진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미래 융합 기술 분야에서 첨단기술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갖추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IST가 추진하는 5대 중점영역의 연구는 상당 부분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과 직접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IST '비전21' 연구사업을 통한 미래 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로 후속 연구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선진국의 미래기술 발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❶ **지난 40여 년 동안 KIST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종합연구 기관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대도 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KIST의 활약이 많이 위축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KIST의 도약을 위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요?**

KIST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원인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따라 과학기술 활동의 액티도 커지고 다양해진 환경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산업계의 기술개발 투자가 정부보다 대략 3배 정도로 훨씬 커졌고, 대학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전문분야별로 많은 정부출연연구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 연구소가 인력규모와 예산 사용에서 과거처럼 메이저 플레이어 아닙니다. 따라서 KIST의 좋은 연구결과가 덜 돋보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KIST에 거는 기대치가 높다보니 활약이 위축되었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ST가 환경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1989년 KIST로 다시 분리·독립한 이후 내부적으로는 연구 분야와 기관 운영 제도에서 많은 변화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보면 과거의 보수성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에 산업계와 대학 연구가 부족한 시기에 KIST가 담당하던 연구를 과감하게 넘겨주고, 국민 소득이 1만 달러가 넘는 국가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새로운 역할과 분야를 찾는데 미흡했다는 생각입니다.

KIST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활약과 모습을 보이려면 산업계와 대학에서 할 수 없는 대형·융합기술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KIST는 국가적 핵심과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실제로 KIST는 국가적 핵심과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로봇, 연료전지 등의 연구로 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 육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산업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자원, 환경, 복지, 사회안전망 등 공공부문에서도 선진사회

실현에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를 발굴하고 이런 연구과제에서 우리의 핵심 역량을 집중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KIST와 같은 종합연구기관이 담당해야 할 공공성이 높은 국가적 핵심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KIST가 정부연구소로서 국가적 과제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질적 수준이 국제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 수준의 핵심 역량을 확보·유지하는 연구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KIST는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융합기술 분야로 집중하되, 핵심역량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해당분야에서 국내외의 리더십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KIST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그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기술변화를 선도하는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역량을 갖추면, 국민이 기대하는 좋은 연구소로 탈바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최근에는 새로운 인력의 확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새로운 인력 충원이 없으면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안정한 위촉 연구원만으로 연구원의 활력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수 인력을 욕심만큼 유인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학력자의 인력시장에서 우리 나라는 매우 특이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절대 다수가 대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처럼 대학교수가 갖는 사회적인 인식과 처우가 연구소와 산업체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예를 선진국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교수와 동일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연구원의 봉급이 높지 않으며, 퇴직 정년이 훨씬 빠르고, 그리고 퇴직 후 연금 등의 보장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우수한 신규 인력을 유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핵심역량을 축적한 중견 인력이 대학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KIST의 인력 유동성은 꼭 나쁘지만 않습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KIST는 16명의 해외 박사를 포함하여 47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고, 반면 33명의 정규직 연구원들이 퇴직하였습니다. KIST의 연구원이 400명을 웃도는 수준이므로 매년 약 8% 정도의 인력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수한 신규

인력의 지속적인 충원으로, KIST 연구원의 평균 연령은 41세로 점점 젊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KIST에서 경력을 축적하여 수월성을 갖춘 연구원이 대학으로 계속 이직하고 있고, 하부 연구 인력의 상당부분이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있는 비정규 인력, 즉 위촉연구원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연구인력 구조의 개선은 필요합니다. 위촉연구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결정될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 발맞추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인력의 유치와 유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원을 선진국 패턴과 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처우 개선은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교수직에 상응하는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공공기능 연구소로서 보다 좋은 연구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복합적인 처방으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인력구조,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지원 제도, 그리고 연구 생산성을 상승시키는 기관운영 방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포스트 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우수한 연구능력을 갖춘 중간 경력자, 예를 들면 교수가 KIST와 한시적 계약으로 정직원과 동등한 대우와 환경에서 우리의 연구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도해 보려합니다. 이런 제도로 KIST가 부족한 전문성을 아웃소싱할 수 있으며, 연구 인력의 유동성을 높이고 내외 경쟁을 유도하는 등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좋은 연구 환경을 만들어서 의욕이 넘치는 전문가들이 KIST에서 자아실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직의 처우가 월등한 우리 현실에서 내부적인 제도 개선만으로 가능치 않습니다. 내부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우수한 결과를 창출하는 연구원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기관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오늘날 KIST의 가장 심각한 과제는 연구원의 사기를 높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평생 KIST에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연구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과 신분 보장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연구원의 사기문제는 금전적인 대우뿐만 아니라 직업의 안정성, 연구환경의 우수성, 각종 보상과 복지의 수준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KIST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수연구 성과급제, 영년제 등을 시행하여, 작년에 상당수 연구원에게 연봉의 반을 성과급으로 수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IMF 당시 연구원에 대한 정년이 61세로 낮추어졌는데, 이는 퇴직 후 연금제도가 없는 것과 함께 연구원의 신분보장을 저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최근 정부도 계약 연장제와 임금 피크제를 연동시켜 사실상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연구원 사기진작에 KIST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버금가는 연금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원 공제회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가깝게는 현재 KIST에서 우수한 퇴직 연구원에게 시행중인 초빙연구위원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 가지 해소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고 싶은 연구소의 구현은 정년연장과 연금제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의 구축, 공정한 평가와 우수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의 조성, 우수한 연구지원 인력의 확보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혁신과 세계적 수준의 KIST 브랜드를 만들어 낼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재임기간 중, 연구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선택과 집중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효율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선택과 집중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연구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은 아직 진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책 추진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연구 재원이 대형과제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과학분야에서 연구지원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데, 기초과학 분야는 보텀 업 방식의 과제 기획과 다양한 분야에 장기적인 지원을 행할 때 성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좋은 지원사례가 국가지정 실험실(NRL)사업입니다.



NRL 사업은 정부가 추진한 R&D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상당부분 상대적 우월성과 열정을 가진 연구자에게 크게 자율성을 부여한 정책이 주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국가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자원은 선진 각국에 비해 부족한 반면, 세계적 수준에 빠른 시간내에 성장해야 하는 절박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R&D 사업을 대형 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정책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기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목적성을 가진 연구사업의 장기 및 대형화는 필요한 정책수단입니다.

다만 지난 수년 동안 정부의 모든 부처가 경쟁적으로 대형과제를 지원하는 경향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경향이 너무 높다보니, 여러 부작용과 연구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초과학 육성과 저변확대와 연관성이 높은 정책의 추진에는 상향식 과제 지원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과학자들의 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규제가 과학자의 연구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먼저 황우석 사태로 인해 과학계가 국민과 정부에 많은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과학계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 관리를 강화할 필요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연구결과의 조작이라든가 비참여 연구원의 저자 끼워 넣기 등에 대한 관리의 강화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정부에서 연구윤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맞춰 KIST도 세계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윤리' 의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개인의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교육 및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치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계 일각에서는 연구전반에 걸친 투명한 관리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신중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때 연구관리 기관에서 연구자를 신뢰하지 않고 과도하게 연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 다른 평가 사이클로 밀어넣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국가 연구관리 시스템이 이미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평가 관련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윤리 차원에서 또 다른 관리기제가 도입된다면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윤리의식 및 연구 성과에 대한 관리는 강화해 나가야 하겠지만, 중간 과정에 대한 필요 이상의 간섭은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표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모든 출연연구기관을 대표하여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관리정책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연구회체제 출범 이후 이사회를 통한 출연연 관리감독 시스템이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사회 체제 아래서 출연연의 경영 체계가 예전보다 강화되고 선진화된 측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연연 관리감독의 주요 수단인 각종 평가가 점점 강화되고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관평가, 기본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혁신평가, 자체평가 등 수없이 많은 평가 속으로 연구자들이 밀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평가의 대상이 기관이든



과제든 상관없이 평가의 주기가 다년평가로 확대되고, 단기 정량적 성과 중심에서 장기적 과학기술 스톡(지식기반)의 확대라는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작년부터 기관평가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이 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출연연의 연구비 구성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출연연 연구사업비의 구조를 보면 기관고유사업과 경쟁적 수탁사업이 섞여 있는데, 이러한 구조로는 기관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PBS 시스템 아래서는 기관고유의 연구영역과 분야에 집중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고유사업의 비중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고, 연구관리 시스템도 그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대신 출연연의 연구영역은 산업계와 대학이 하지 못하는 분야로 전환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출연연 관리시스템을 이런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해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및 역할의 우선순위를 산학연관 중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또한 29개 정부 출연연들의 역할 차별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기초과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IST조차 기초과학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장님께서서는 재료공학을 전공하셨지만, 나노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KIST 차원에서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KIST의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보면 과학연구보다는 기술개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KIST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과학 연구를 늘려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우선 1990년대 중반에 의과학센터를 개설하여 기초 연구를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신경과학 연구와 스핀트로닉스 연구 등 과학적 지식의 진보에 기초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 연구기관이라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서 과학을 위한 과학 보다는 목적성을 지닌 기초과학 연구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로 차세대 혹은 미래 유망기술을 선도할 기초 원천 연구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KIST가 미래 첨단 분야의 연구와 융합연구를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기초적 해석과 분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KIST의 연구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분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나노분야에서는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첨단 분석 인력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KIST에서는 이들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KIST의 미래융합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순수과학의 도움이 역시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당분간 대학에 맡기고 아웃소싱을 통하여 해결할 생각입니다.

❶ **원장님께서서는 청소년들의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런 면에서 KIST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수한 이공계 인재 양성은 먼저 이공계 출신이 우대를 받는 환경의 조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렵고 난해한 이과계통의 공부를 하고 수업료도 다른 학생들보다 더 내야 하는 이공계 출신이 동일한 조건의 경상계 출신보다 떨어지는 대우를 받는다면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즘 100대 대기업의 CEO가 이공계가 42%에 달한다고 하여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공계 출신의 사회 진출 기회가 더욱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공계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우수한 인재 교육을 장려하고 이런 방향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제도와 영재교육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우수한 인재를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절실합니다. 이런 면에서 과학기술부가 제기한 전주기적 이공계 교육

시스템은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공계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김우식 부총리께서 취임 후 여러 차례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 경쟁력이고, 과학기술 경쟁력은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공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현장의 요구와 접목되지 않은 이공계 교육은 쓸모가 없습니다. 최근 공학교육 인증제가 점차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KIST는 연구원의 특성에 맞게 현장 중심의 교육기회를 석·박사 학생들로 구성된 학연생들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현재 KIST에는 400여 명의 학연생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출연연 전체를 통틀어 단연 최고의 수준입니다. KIST에서 학위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수도 이미 1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고, 졸업생 중 90% 이상의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포함하여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수한 이공계 인재의 산실로서 KIST의 역할이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KIST는 학연생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외국인 학연생들까지 포함한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❷ **너무 딱딱한 질문만 드렸습니다. 이제 과학자의 길에서 본격적인 관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요?**

특별한 계기를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처해진 상황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999년 2월부터 KISTEP의 연구기획관리단장을 맡은 경험이 여기까지 이어진 보다 직접적인 인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일이어서 기관운영과는 다른 업무였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실 밖의 사회를 경험하게 되고 국가적인 연구개발 정책과 현황을 비교적 가깝게 접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 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꿈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KIST가 내 직장이고 정부출연연구소로서 주변에서 관심과 애정을 많이 받는 연구소이므로 우리 사회가 필요한 바람직한 연구소로 유지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태여 소망하는 바를 지적하면, 선진국의 우수한 정부연구소처럼 앞으로 대학 교수가 연구의 수월성을 위해서 KIST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❸